

#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마을의 構成\*

통정시 지신향 장재촌을 대상으로

李奎成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1. 序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 연변지방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우리사회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韓民族의 문화적 正體性을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그동안 한국과 교류가 없다가 1992년 가을 한중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변지역의 建造環境에 대한 현장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의 우리 동포인 조선족은 과거 100여년에 걸쳐 고국을 떠나서 중국에 정착하여 살아오는 동안 격변하는 사회변동을 겪었으며, 그중 하나가 사회주의혁명이었고 결국 우리와는 다른 정치, 경제체제에 속하게 되었다. 100여년에 걸쳐서 우리 고유문화가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용되었는가를 건조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작업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연변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동포인 조선족 이주민들이 이룩한 마을들은 한민족주거의 또 한 갈래의 실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으로서 韓民族주거의 본질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대부분 함경북도형 양통집이 지어져서 건축방법이나 공간의 이용방식은 북한 함경도지역의 경우와

흡사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주택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마을공간구조도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 구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주거문화의 속성을 아직까지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을 하나 택하여 이 마을 형성초기의 입지를 풍수적으로 해석해 보며, 현재 이루어진 마을의 구성을 현상을 통한 환경인식과 공간구조<sup>1)</sup>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마을의 전체상을 명확히 해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연변지구에 형성된 전통적 마을의 구성이 제도나 체제가 다른 토양에서 어떤 모습을 갖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 마을을 선택하기 위해서 1993년 2월 연변지역 현지에 출장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10개의 마을을 답사하고 재반조건<sup>2)</sup>을 고려한 결과 吉林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92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인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부이다.

- 1) 여기서 공간구조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의 요소들이 가진 질서들을 말하는데, 공간자체의 물리적 형태와 규모, 구성방법 등의 객관적 요소들과 공간을 이미지화하고 평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다.
- 2) 연구대상지 선정에 고려된 조건들은 (1)주거문화형성의 주체가 한국에서 이주한 사람들

省 龍井市 智新郷 長財村마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장재촌마을은 1880년 이전에 이미 漢族 지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개척되었지만, 1880년경부터는 조선의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점차 조선족마을이 형성됨에 따라 1900년경 한족지주는 타지로 이사하였다. 그 이후 순수 조선족마을을 이루어 지금까지 112가구, 406명의 인구를 가진 마을로 발전해 오는 동안 독특한 주거환경을 이룩하였고 그 속에는 우리의 전통적 주거문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장재촌마을은 농업소득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주민의 도시이주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離村向都의 경향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미 몇채의 주택이 방치되어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여러채의 주택들은 새로운 유형으로 재축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변의 여타 조선족 마을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멸실과 신축은 초기에 이루어졌던 보다 전통적인 건조환경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할 것이므로, 마을의 건조환경이 더 변화하기 전에 연구를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장재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을의 초기상황을 풍수적으로 해석해 보고 현상의 해석을 통해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sup>3)</sup>

분석에서 이용된 자료의 종류와 작성방법 및 이용된 곳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자료 : 연변과 한국에서 발행된 연변지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단행본 책자들로서 장재촌과 연변지방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

일 것. (2)마을 형성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이 민초기일 것. (3)교통이 편리하고 규모가 적당하여 제한된 기간내에 조사가 가능할 것 등이었다.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 (2) 마을배치평면도 : 주택과 길, 담장 및 기타 주요 지형지물 등 마을 외부공간의 형태를 배치평면도로 나타내기 위해 평판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은 연변대학 연구진과 공동작업으로 시행하였다. 현장에서의 측량시 측척은 1/400로 하였다. 배치평면도는 마을 공간구조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토지이용, 가로,의 구성 및 복원적 분석에 白圖(Base Map)로 이용되었다.
- (3) 관찰기록 및 사진자료 : 주택외부의 행위무대(Behavioral Setting)를 확인하여 외부공간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된 사항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행하였다.
- (4) 주민면담기록 : 주요장소나 길의 이용방법을 추출하고 마을과 주변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하고 기록하였다.
- (5) 지도 : 중국정부에서 발행한 측척 1/50,000 지형도를 룡정시에서 입수하여 지형과 지세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마을회계집에 보관된 科技當案에는 지신향의 일반정황과 더불어 1/25,000 측척의 智新郷圖가 있었는데 이를 마을행정구역면적의 계산, 지명과 길의 확인, 농경지의 확인 등에 보조자료로 이용하였다.

현장조사는 3단계에 걸쳐서 시행하였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예비조사 : 1993년 2월 (10일 간)
- \* 본조사 : 1993년 7월-8월 (20일 간)
- \* 보완조사 : 1994년 2월 (10일 간)

- 3)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구체적인 1차적 자료는 매우 방대한 양이므로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실측작업에 의해 작성된 마을의 배치평면도, 주거실측도의 1차자료와 이에 대한 해석으로 마을의 공간구조, 장재촌주거의 건축적 특성과 장재촌 주거의 공간이용실태 등을 수록하는 외에 연변자치주의 역사, 인문사항, 주거일반 등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마을형성 초기단계의 구조를 전통사상인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공간구성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공간구조는 의미적 차원과 물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의미공간에서는 영역, 장소, 축의 존재를 밝혔으며, 물적공간에서는 경작지의 구성, 경관, 토지이용, 대지와 도로, 외부공간 및 가로망구성과 특성을 다루었다.

그러나 시간과 경비 및 인력의 한계로 연구의 대상이 장재촌 한 곳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변지방에 형성된 조선족의 여타 마을들과는 상호 비교 분석되지 못하였다.<sup>4)</sup>

長白丘陵地<sup>5)</sup>에 속한다. 장백구룡지역은 북동에서 남서로 뻗은 대장백산맥을 중앙에 둔 산악지역으로 자치주의 대부분은 大長白山脈의 남측 사면에 위치한다. 50,000 분지 1 지도에 의하면 장재촌은 해발 360-370 미터의 표고에 위치한다.

장재촌은 마을 뒤의 '뒷산'과 마을 앞의 냇물인 '육도하(六道河)' 사이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마을의 앞쪽 외곽과 강사이의 약 100 미터 떨어져 있다. 마을의 뒷쪽 외곽에는 폭 20-30 미터의 완경사의 밭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뒷산의 경사지와 연결해 있다.

마을의 주택지는 배산임수하여 길게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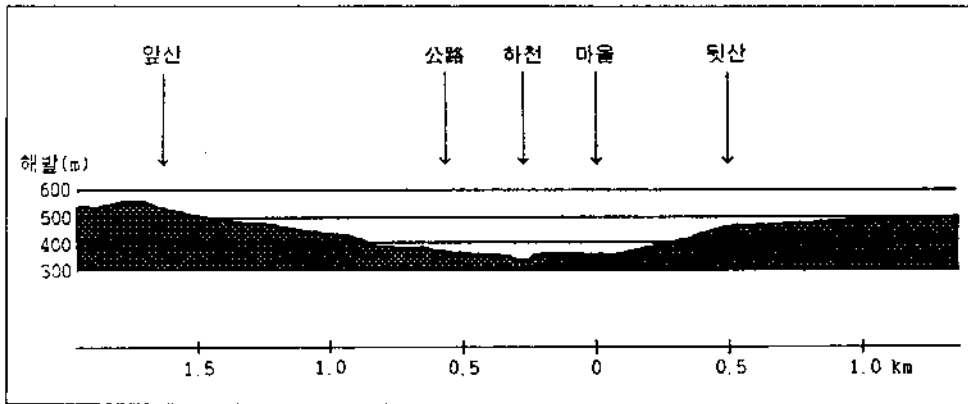


그림 1. 곡저평야 횡단면도

## 2. 지형 지세 및 초기 공간의 구성

### 2-1. 지형의 특징

장재촌이 속한 연변자치주는 중국의 지방별 구분으로 볼 때 동북지방에 속하며 지형적 구분으로는

4) 현장조사시에는 배치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마을을 실측하는데에 대부분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다른 조선족 마을들은 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개개 주거만이 실측되었다. 연변 조선족 마을들의 개척역사와 현황에 대해서는 앞 논문(김봉렬,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을 참조할 것.

가 차차 확장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의 켜기형으로 확장 발전되었다.

마을뒷산은 그리 높지 않은데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 마을의 앞쪽에서 볼 때 산의 능선과 하늘이 닿은 기다랗고 완만한 공제선(sky-line)을 볼 수 있다. 이 공제선의 해발 표고는 높은 곳이 480 미터 정도로 마을의 중심표면에서 볼 때 120 미터 정도 높이에 있다.

마을 앞의 강은 海蘭河의 지류로서 六道河라고 불리며 동남쪽에서 흘러와서 서북쪽의 통정으로 흐르는데 강폭은 재방사이가 약 50 미터로 넓지

5) 王益厓 편저: 『中國地理 下册』, 正中書局, 臺北, 1957, p.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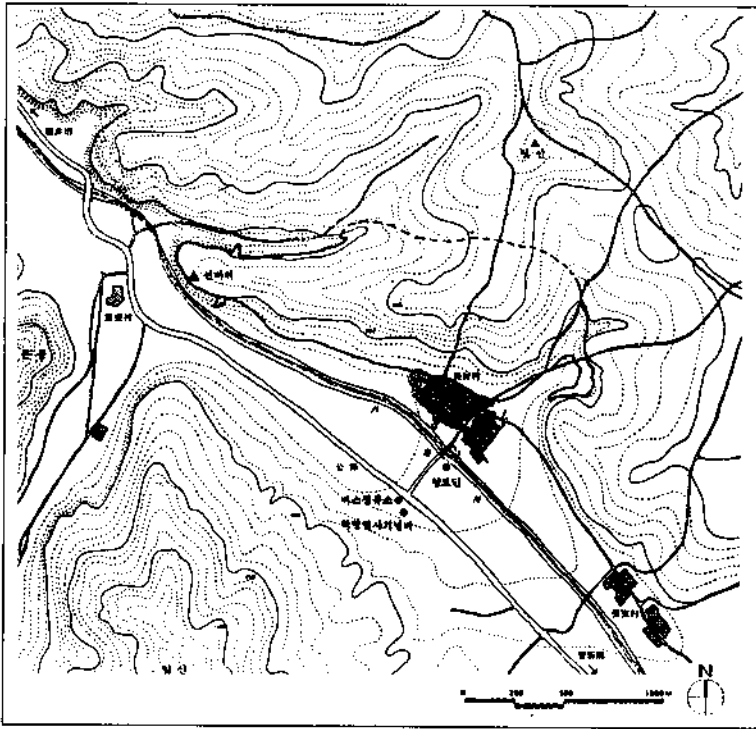


그림 2 마을인근 지형과 소의 형태

않으며, 조사할 당시(93년 8월 초) 물이 흐르는 넓이는 10미터 정도였고 수심도 얇아서 깊은 곳이 30센티미터 정도였다. 지도에 의해 다리가 있는 지점의 河上表高를 추정하면 해발 355 미터 정도가 된다.

마을은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강을 긴 넓고 기다란 개활지가 있고 그 앞으로는 다시 앞산(최고표고 해발 550 미터)이 길게 뻗어있는 형세이며 마을에서 전면 왼쪽에 멀리 더 높은 오봉산(최고표고 해발 790 미터)이 있고 전면 오른쪽으로 큰봉(최고표고 해발 695 미터)이 솟아 있다. 한마디로 자신과 통정을 잇는 기다란 谷底평야의 한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이 곡저평야의 대표적 횡단면을 5만분지 1 지도를 이용하여 표시해 본 것이 그림 1.의 단면도인데 계곡의 횡단경사는 마을앞쪽 산지에서 약 10%이고 뒷쪽산지는 약 20%가 되어 경사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 2-2. 마을형성 초기의 형국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장재촌은 배산임수의 형국을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풍수적 해석이 가능하며 초기의 이주민들이 마을의 위치를 잡을 때 이를 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면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에 거주하는 목수 천봉진씨에 의하면 마을이 배의 형국이라서 예전에는 각자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sup>6)</sup> 마을 주변의 지형과 연관해서 촌장 전기호씨는 흥미있는 口傳을 소개하였다. 이 마을이 소의 엉덩이 부분에 해당하여 부유한 마을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서, 선바위를 소의 머리로

6) 소위 배 형국(行舟形)은 배 안에 재물과 인재를 가득 실은 상태를 상징하므로 그 마을의 자리가 吉地가 된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그 예가 많다. 경남 산청군의 上沙와 丹溪가 이 형국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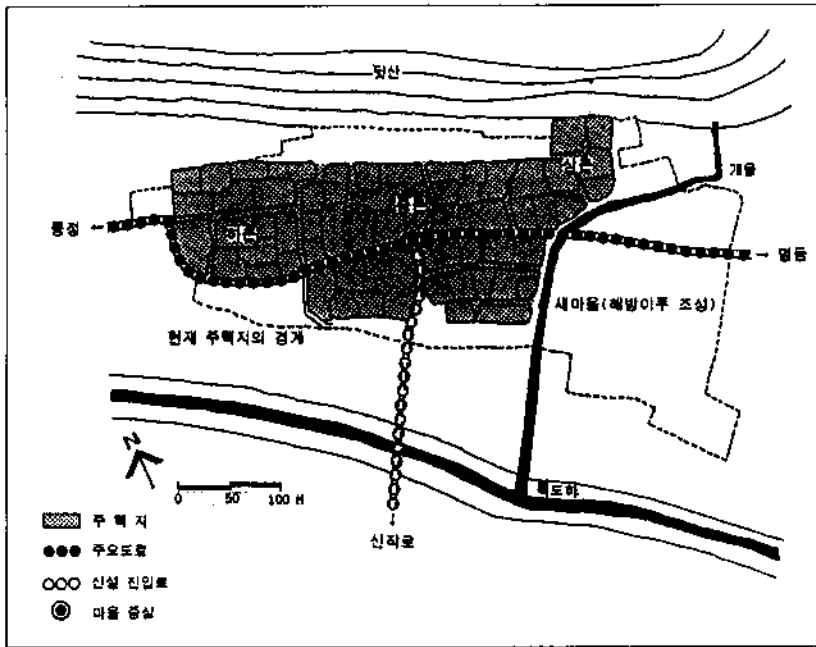


그림 3. 마을의 초기 배치도

하고 뒷산을 소의 몸통으로 하며 마을 뒤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소의 꼬리로 볼 때 그렇다고 한다.)(그림 2 마을인근 지형과 소의 형태 참조)

마을의 형국은 풍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때 주산=뒷산, 수구=마을 앞의 냇물, 안산=앞산, 朝山=큰봉으로 비정할 수 있다. 마을 좌우의 산자락은 그 세가 미약하지만 청룡과 백호로 비정할 수 있다.

초기에 지어진 주택들의 主向은 집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丑坐未向(正南방향에서 서쪽으로 27도 가량 기울어짐)에 가깝다. 정남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앞산과 뒷산, 강의 축에 평행하게 주택을 배치한 결과로 보인다.

7) 村山智順에 의하면 臥牛形의 땅은 충북 영동 장척리, 전남 범성포, 평남 회천 장동 등에서 나타나는데, 소는 예전부터 농경에 필수적인 조력자이며 농민들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소의 모습이 길한 형태로 선호되었을 것은 쉽게 추측된다. 村山智順(최길성 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pp.689-693.

### 2-3. 초기의 마을공간

초기의 마을 공간은 지금의 상황(후술의 설명 및 마을배치도 참조)과 매우 달랐다. 이민초기에는 통정과 명동을 잇는 도로가 마을안을 통과하며 주진입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신작로(공로)는 일제기에 건설되었고 신작로와 마을을 잇는 길도 지금과는 위치가 달라서, 현재 양로단 앞의 초가에서 리동규씨집 옆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원래의 마을안길들은 지금보다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주택지의 경우에도 해방전의 마을은 개울 서쪽에만 있었다 하는데, 마을은 다시 아랫마을(下村), 중마을(中村), 윗마을(上村)의 셋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한다. 해방후 개울 동쪽에 새마을이 형성되고 원마을의 앞과 뒤로 한 줄씩의 집이 더 지어졌다고 한다.

해방후 개개의 주택과 대지도 변화하였다. 옛집이 많이 헐리고 새집이 지어졌으며 부농층의 주거는 대지가 축소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리종순

씨 집과 다른 몇집의 경우 지금은 뜰채 밖에 없으나 예전에는 대문채가 있었고 담도 둘담이었다고 한다. 대문채는 3칸으로 양옆에 머슴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해방무렵 마을의 주택수는 약 60호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주택지와 길을 중심으로 해방이전 무렵 마을의 개략적인 복원배치도를 그려보면 그림 3과 같이 된다.

이 도면을 보면, 마을은 상·중·하의 소영역으로 분절되며 마을의 중심이 분명하다. 특히 현재의 새마을이 가진 이질적이고 확실적인 요소들이 없었기에 그 공간구조는 더욱 정연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마을의 중심은 하천쪽에서 오는 길과 마을 주도 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현재의 마을중심(개울위 다리근처)과는 150 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나 중심으로서의 위치는 더욱 우수하다.

통로는 마을의 길이방향을 꿰뚫고 있으며 하천이나 산들과 같은 방향을 가져서 공간을 가지런히 하고 있다.

### 3. 의미공간의 구성체계

#### 3-1. 주요 장소와 영역의 구성

인간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머릿속에 환경의 요소들을 심상(image)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 심상은 실제의 요소들을 간략화하며 체계화하여 인지도로 저장된다. 인지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가지로서 장소, 영역 및 통로(축)가 된다.

마을의 최외곽에 위치하는 자연적인 주요 지형지물이나 인공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장소들은 이 마을주민이 인식하는 영역의 경계가 된다. 이러한 장소와 그 바탕이 되는 영역에 대한 인식은 한 주민(허룡범씨)이 그린 마을의 구성에 대한 환경인지도 그림 4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오봉산과 앞산, 큰봉, 신동촌, 선바위, 뒷산, 명동촌의 장소들이 순차적으로 다시 오봉산으로 이어지는 대략의 윤곽이 인지영역의 범위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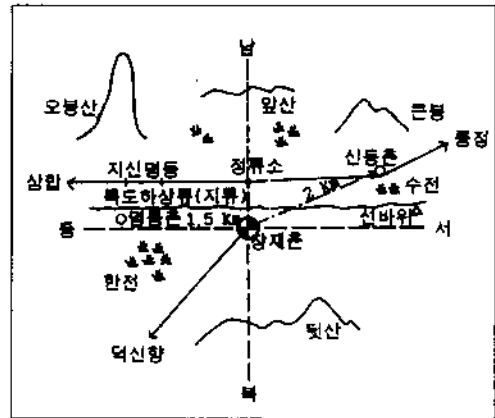


그림 4. 주민의 환경인지도

며 이 영역의 내부에는 다시 버스정류소, 열사추모비, 양로단 및 장재촌 자체의 주요장소들이 자리잡는다. 또한 산과 하천, 도로는 영역내의 주요 축들이 된다.

주요장소와 영역, 축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환경에 대한 인식체계는 그 형태가 기하학적이고 좌우와 상하의 균형이 잡혀 비교적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장재촌이 인간의 정주지로서 다양하고 질서가 잡힌 소유주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인지도에 나타난 요소들 중 주요장소들을 지도를 응용하여 실제의 위치로 환원하면 그림 5와 같이 되어 환경인지도보다는 정연성이 떨어지지만 위상기하학적으로는 동일한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을외곽의 주요장소들 중 아직 서술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선바위 - 룡정에서 마을로 오다보면 도로옆에 우뚝 솟은 암괴가 눈에 띄는데 이것이 '선바위'이다. 이 바위는 장재촌에서 서북쪽으로 1.5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신동촌 근처 룡도하의 북쪽 절벽에 뾰족하게 솟아 있는 바위산이다. 선바위는 신동촌과 장재촌, 그리고 장재촌 동남쪽 인근마을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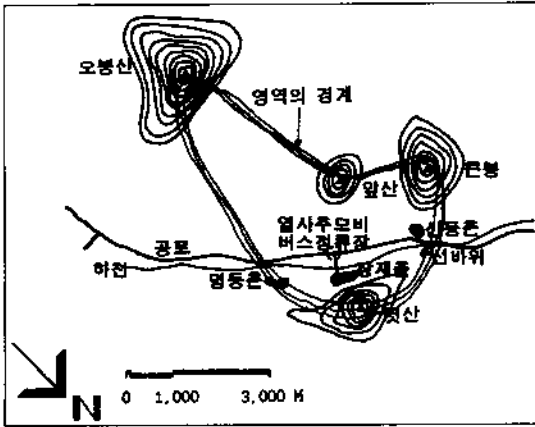


그림 5. 주요장소 위치도

동촌 일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연적 랜드마크이다.

- \* 버스 정류소와 열사기념비 - 통정 - 삼합진의 공로가 마을진입로와 만나는 장소의 노변이 버스정류소로 주민소유의 자가용차가 전무함으로 통정동에 나들이갈 때는 이곳에서 버스를 이용한다. 버스정류소에서 마을과 반대쪽으로 50 미터 가량 떨어져서 항일운동에서 희생된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있는데 이것이 혁명열사기념비이다. 비석은 大小 두개가 있는데, 크고 중심이 되는 것이 1984년에 세운 것이며, 작은 것은 1959년에 세운 것이다.
- \* 신동 - 주택 30호, 인구 124인의 조선족 마을로서 장재촌에서 서북쪽으로 1.5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택의 규모나 질이 장재촌보다는 떨어진다.
- \* 명동 - 주택 30호, 인구 90여인의 조선족 마을이다. 장재촌에서 동남쪽으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1908년 명동중학이 세워져서 민족교육의 요람이 되었던 마을이다. 마을내의 주요장소로 명동학교터, 옛날 교회로 쓰던 건물이 있다.
- \* 養路團 - 하천 건너서 진입로 옆에 있고, 公路를 보수유지하는 기관의 분소로서 근로자 숙소와 몇채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 3-2. 통로와 축의 구성

이 마을은 통정에서 삼合鎮으로 가는 간선도로(공로)를 따라 15킬로미터 정도 가다가 공로를 버리고, 버스정류소에서 좌측으로 꺾어 마을진입로를 따라 450 미터 정도 들어가서 자리잡고 있다. 통정-지신을 잇는 공로와 중간에 내를 건너는 마을진입로는 차와 사람의 이동이 가능한 중요한 통로로서 존재하며 마을의 출입은 주로 이것을 이용한다.

마을 뒷쪽으로 구룡을 넘어 덕신으로 가는 길이 있으나 길의 폭이 좁고 표면상태가 나빠서 차가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길은 사람이나 달구지가 경작지로 가는데 이용하며 덕신과의 연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행이 아주 적고 통로로서의 중요도도 떨어진다.

또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는 비교적 좁은 길로 마을에서 명동으로 가는 길과 마을에서 선바위로 통하는 길이 있다. 이중 명동으로 가는 길은 이웃마을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통로이며, 선바위로 가는 길은 예전에는 자주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차를 타고 공로를 경유하여 선바위로 가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로들은 모두 마을을 정위시키는데 필요한 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축은 다시 방향에 따라서 횡축과 종축으로 나눌 수 있다. 횡축의 경우는 우선 마을 앞의 통정-삼합의 공로<sup>8)</sup>와 명동-장재촌-선바위를 잇는 소로의 두개를 들 수 있다.

통로 외에도 횡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마을 앞의 하천<sup>9)</sup>과 마을 앞과 뒤의 산피를 들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횡축은 5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이 마을 환경인지의 중요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로에서 마을까지 오는 진입로는 주요한 통로이자 종축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종방향의 軸性은 횡축과 직각으로 대비되는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산

- 8) 도로 양측의 가로수가 선형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 9) 하천의 선형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방과 그 위에 심어진 백양나무군을 들 수 있다.
- 10) 마을의 안길과 주택의 배치방향도 횡축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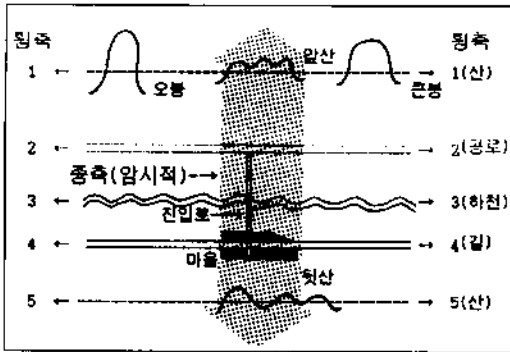


그림 6. 횡축과 종축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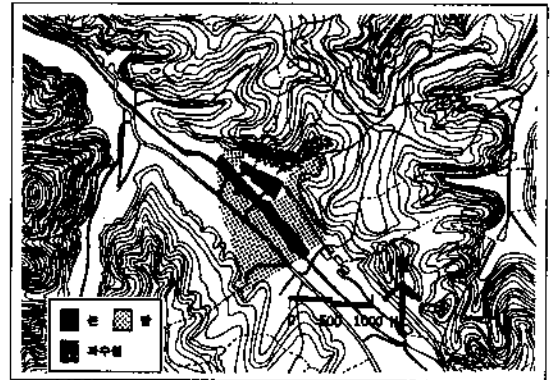


그림 7. 경작지 분포도

-길-물-길-산으로 이어지는 5 점의 횡축들을 감지 할 경우 이들을 엮는 인지행위는 종방향을 의식하게 하며, 마을 어디서나 균일하게 감지되므로, 종축은 面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강한 횡축의 존재는 이를 보완하는 종축의 존재를 암시하며 종방향으로 뻗은 진입로는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그림 6. 횡축과 종축의 존재)

#### 4. 공간의 구성과 이용

##### 4-1. 경작지의 구성

마을의 경작지는 한천(밭)이 175 ha, 수전(논)이 15 ha, 과수원이 10 ha 로 전체 경지면적은 200 ha(주택지내부의 터밭을 포함한 면적)로 각 집마다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데, 1981년의 개혁개방 이후 토지의 분배시에는 각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경지의 전체면적은 마을의 행정구역면적(약 738ha)의 27%인데 구역내 나머지는 도로, 하천을 빼면 山地로 추정된다.

밭의 경작물은 담배가 주종(면적비 50%)이며 그 다음이 콩과 옥수수(면적비 각각 25%)이다. 논에는 벼를 재배하며 과수원에서는 사과배가 재배된다.

논의 위치는 주로 강변으로 마을에서의 최대거리는 1.5 킬로미터 정도이며, 밭은 좀더 광범위하게 널려 있어서 최대거리가 3 킬로미터 까지 된다고 한다. 경작지의 분포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이 된다.

##### 4-2. 경관의 특징

현재 마을과 주변의 경관은 인공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선 마을 뒷산은 큰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으로 풀과 잡목으로 덮여 있다. 마을 앞산의 경우에는 중턱에서 산정까지 약 반쯤의 지역에는 키가 작은 침엽수림이 있으나 그 이외의 부분에는 나무가 없고, 오동과 큰봉의 산피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무가 없다.

앞쪽과 뒷쪽 산지의 아랫쪽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더 아래의 谷底平野 부분도 하천을 제외하면 논이나 밭으로 이용된다.

역사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1880년경 이 마을이 형성될 개척시기에는 이 마을은 물론 연변지방에는 산에 나무가 많은 자연상태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주민들은 산의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 연료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숲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만들었다고 하므로 현재의 백두산일대와 같은 천연림이 이곳에도 있었다고 추측된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해방 전에는 뒷산에 참나무가 무성했고 강가에도 나무가 우거졌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하므로 산에 나무가 많아서 마을을 흐르는 도랑의 수량이 지금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척초기에는 현재의 산지는 물론 경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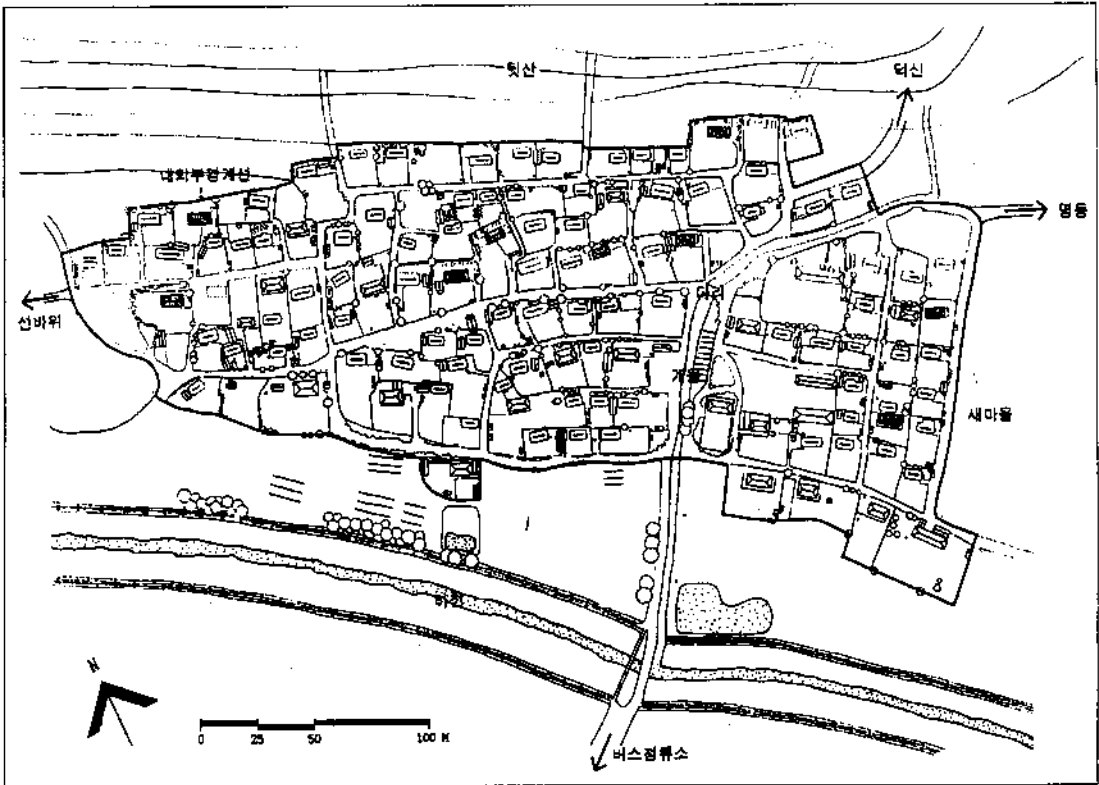


그림 8. 마을배치도

와 주택지도 자연림으로 덮혀 있었다. 그후 숲은 점차 인공적 훼손으로 없어지고 현재와 같은 경관으로 변화하였다.

자연올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인공을 가한 결과 경관의 대부분이 인공적 요소로 특징지워지며, 경지, 주택지, 험벗은 산, 도로와 가로수 등 인공적으로 결과한 경관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천의 경우에도 제방이 있어 인공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경작지는 논보다 밭이 면적으로 12배 가량 많으며, 주로 담배가 재배되므로 담배밭이 여름철 경관의 주 요소가 된다. 여름철 경관은 담배밭과 산의 풀과 관목으로 초록색을 주조로 하는 경관이 된다. 겨울철에는 경지에 재배작물이 없음으로 해서 경관은 매우 황량한 분위기를 풍긴다.

#### 4-3 토지이용 비율<sup>11)</sup>

마을의 주택지는 가로가 약 600 미터, 세로는 가장 넓은 곳에서 약 220 미터의 길고 좌측이 뾰족한 썩기형의 모습이다. 주택지 내부의 지형은 앞에서 뒤쪽으로 약간의 경사가 쳐 있는데 경사도는 2-3%에 지나지 않아서 평평하게 보인다.<sup>12)</sup> 마을내 주택의 배치를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마을과 주변을 정확히 경계지우기는 어렵지만 토지이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을내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주택이 내외경계가 될 경우에는 그 주택의 담장을 내외경계로 삼

- 11) 이 장 이후에서의 분석에는 마을과 떨어져 있는 마을 뒷 쪽 현승릉씨 집과 마을 앞 쪽 강 건너에 있는 양로단 및 3채의 집은 제외하였다.
- 12) 경사가 미약하여 마을내부에는 물이 잘 안빠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마을의 서북쪽이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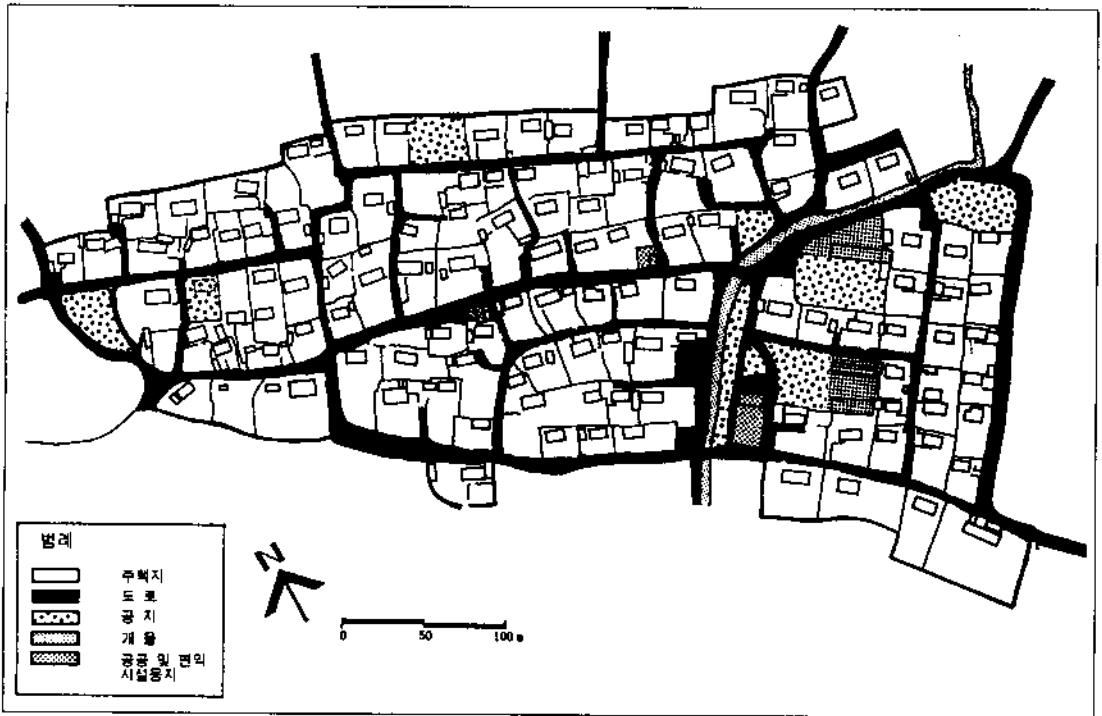


그림 9. 토지이용도

고, 도로가 내외경계가 될 경우에는 도로의 바깥선을 이어서 내외경계로 하고 그 안쪽을 마을내부로 정의하였다. (그림 8. 마을배치도의 내외부경계선 참조)

이때, 마을내 전체면적은 12.22 ha 이 되고, 이중 주택지는 전체면적의 74.9 % 로 그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그 면적은 91,465 m<sup>2</sup> 가 된다. 공공 및 편의시설용지, 공지, 개울 및 도로에 대해 각각의 면적과 전체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내면 표 1.과 같으며, 토지의 용도별 이용을 도면화하면 그림 9.와 같다.

4-4 대지의 구성과 도로와의 관계

대지<sup>13)</sup>는 대부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담장

은 극히 일부분에 있는 돌담을 제외하고는 나무담장으로, 그 재료는 나무판재나 잔나무가지이고 높이는 사람의 키 만큼 된다. 대지의 앞뜰은 한국의 경우처럼 마당으로 이용되지 않고 담배나 채소를 심는 밭으로 이용되는 것이 큰 특색이다.

대지 내부에서는 나무담장으로 공간이 다시 분할되는데, 출입부분과 앞뜰, 뒷뜰의 세개로 三分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번째 출입부분은 출입과 장작 등의 저장, 돼지 우리를 설치하는 장소로서 바닥은 댕땅으로 이루어진다. 앞뜰은 가장 면적이 크고 양지바른 곳으로서 주로 담배를 경작하지만 온실을 설치하기도 하며 일부분에는 자가소비용의 채소를 재배한다. 앞뜰은 가을과 겨울에 재배가 끝난 다음 벼짚을 쌓아두는 마당으로 이용되기도 함으로 따로 넓은 출입구를

13) 담장으로 구획되고 그 안에 1채의 주택과 터밭이 자리잡는 이 부분을 한국의 전통주거와 비교해 볼 때, 마당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 특

징으로 대지라고 호칭하기에는 어색한 점도 있으나 마땅한 용어가 없으므로 대지라고 호칭하였다.

표 1. 마을내의 토지이용 비율

주택지(터밭포함)	91,465 m <sup>2</sup>	74.9 %
공공 및 편의시설용지*	2,980 m <sup>2</sup>	2.4 %
도로	17,106 m <sup>2</sup>	14.0 %
개울	1,356 m <sup>2</sup>	1.1 %
기타(공지)	9,268 m <sup>2</sup>	7.6 %
전체면적	122,175 m <sup>2</sup>	100.0 %

\* 문화실(유치원 겸함), 기둥간, 칠공소(정미소도 같이 있음), 가게(2곳)를 편의상 공공 및 편의시설로 정의하였다.

내에서 여름철에는 달아 둔다. 뒷뜰은 비교적 좁은 공간으로서 장작의 저장소나 장독대로 쓰이며 이곳이 넓은 경우 과수나 채소를 심기도 한다.

대지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일부만 막다른 골목길과 도로로 연결된다. 인접 도로가 두개 이상이라든가 대문은 한 도로에만 내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대지의 담장과 출입마당, 앞뜰, 뒷뜰의 배치물 도로의 위치(전, 후, 좌우)에 따라 세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림 10. 길과 대지의 배치유형 참조)

막다른 골목길을 가진 대지에서는 주택의 대문과 인접도로를 골목길로 연결시켜 인접도로가 좌우나 앞쪽에 있는 경우와 같게 된다.

대지의 주출입구는 대지의 앞쪽 중앙에는 두지 않는데, 이것은 터밭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피하고 주택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장치로 보여진다.

대지는 빈 곳까지 합하여 모두 116 필지인데 전체면적이 80,581.9 m<sup>2</sup>로서, 평균면적은 694.7 m<sup>2</sup>이며, 그 중앙값은 631 m<sup>2</sup>, 분포도의 표준편차는 293.7 m<sup>2</sup>이다. 대지의 규모를 100 m<sup>2</sup> 간격으로 도수화한 분포를 보면 그림 11.(대지의 규모별 분포도)과 같아서 규모가 500 내지 600 m<sup>2</sup>에 속하는 것이 24개로 가장 많다.

4-5. 마을내 외부공간의 구성

마을내 외부공간은 행위무대(behavioral setting)로서 주민들에 의해 빈번히 이용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는데 이들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길 : 대지 밖의 외부공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통행의 목적외에 행상인의 물건 매매 장소, 소나 돼지를 잡아서 파는 장소, 주민들의 대화나 휴식장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안길과 개울 옆의 진입로가 가장 잘 이용된다.

\* 소 매어 두는 곳: 주민들은 소말뚜구지(소말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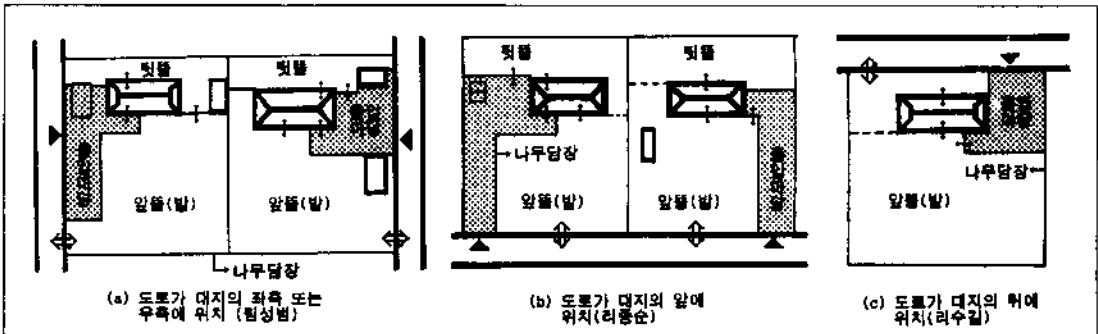


그림 10. 길과 대지의 배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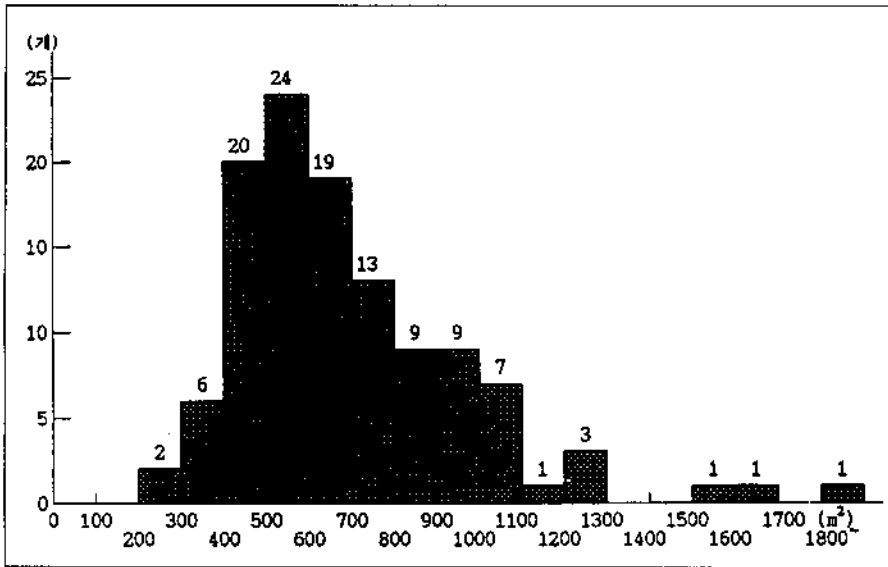


그림 11. 대지의 규모별 분포도

라고 호칭하는데, 소를 집박에 매어놓을 때 사용하는 곳이다.

- \* 빈 집터 : 이전에 집이 있던 곳으로 밭으로 이용될 뿐으로 주요 행위무대는 아니다.
- \* 마을앞 공터 : 마을진입로로 다리를 건너와서 왼쪽에 있는 저지대로서 영화상영이나 마을주민들의 전체모임에 이용되고 공놀이에도 이용되는 공공적 성격이 짙은 공간이다.
- \* 합작사 앞마당 : 합작사는 정부직영의 상점으로 서 집체(공동경작)시절에는 마을 전 주민의 일용품 분배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졌었으나 지금은 그 기능이 퇴화하고 건물은 작은 상점과 주택으로 이용된다. 그 앞마당도 주민의 모임에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밭으로만 이용되어 주요 행위무대는 아니다.
- \* 새마을의 빈터 : 제유소(기름칸), 정미소, 철공소, 목공소 등이 주변에 위치하는 공터로서 작업, 제품이나 재료의 야적 등으로 이용된다.
- \* 문화실 마당 : 문화실은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집회, 독서 등으로 이용되는데 유치원으로도 이용되어 앞마당이 어린이들의 놀이에 빈번하게 이용된다.

\* 가게앞 : 활발하게 이용되는 개인경영의 상점들이 있으며 상점내부 뿐 아니라 외부도 주민들의 옴주나 한담의 장소로 이용된다.

\* 개울주변의 공지 : 어린이들의 놀이터나 담배건조장소로 이용된다. 특히 원래마을과 새마을을 잇는 다리부근은 주민들의 비공식적 모임장소로 잘 이용된다.

이들 외부공간의 위치를 마을배치도에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이 된다.

## 5. 마을내 가로외 구성

### 5-1. 길의 체계

마을내의 도로망은 전반적으로 그물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굽어져 있어 유기적인 형태를 지닌다. 도로의 분기는 몇 지점을 빼고는 대부분 T자형의 삼거리로 분기된다.

도로는 진입의 중요도에 따라 분명한 위계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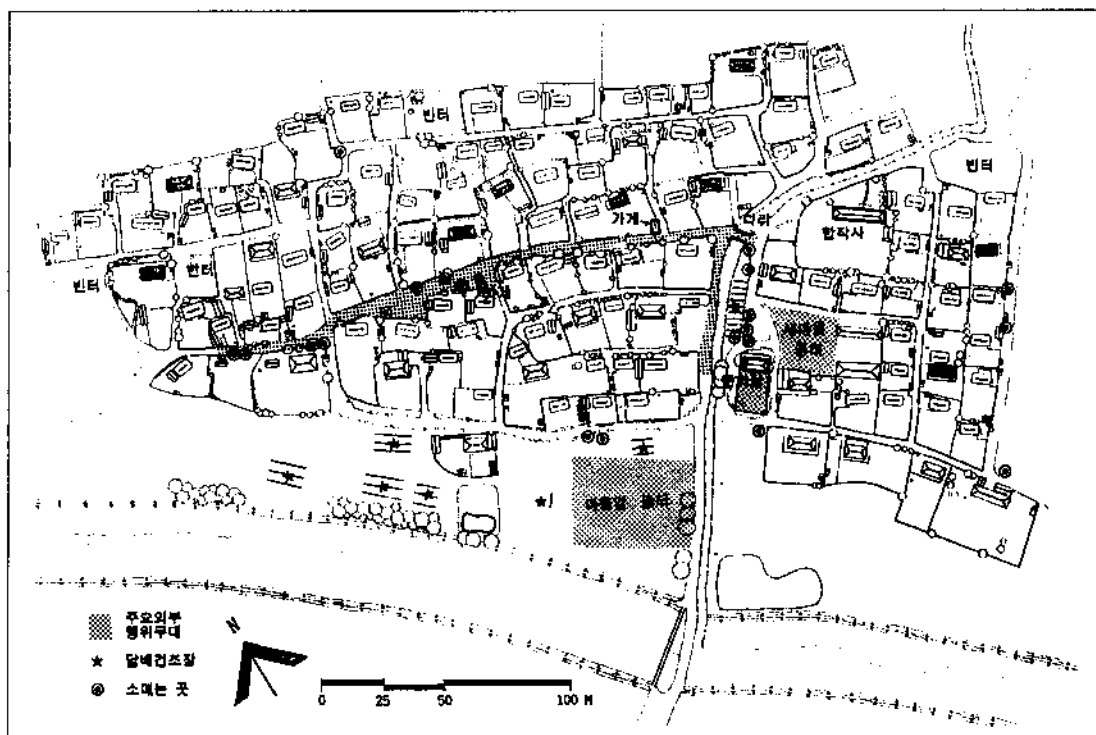


그림 12 마을내 외부공간

지고 있어 대략 4단계의 위계로 분석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위계가 가장 높은 것이 마을 진입로로서 종방향으로 곧게 뻗다가 도랑위의 다리가 있는 곳부터는 도랑을 따라 자연스럽게 굽어진다. 2차적으로는 진입로에서 직각으로 연결되는 주로 횡방향으로 뻗은 마을안길이 된다. 3차적인 길은 종방향으로 뻗으며 안길을 연결시키는 샛길들이다. 마지막 4차의 위계는 안길이나 샛길에서 짧게 뻗은 막다른 골목길이다.(그림 13. 길의 위계적 배열 참조)

마을 안의 길들은 막다른 길과 샛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달구지나 경운기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이며 포장은 되어 있지 않다.

## 5-2 도로율과 도로의 방향

마을내부의 도로는 전체길이가 3,709 미터, 면적은 17,106 m<sup>2</sup> 가 되어 도로율은 14.0 % 가 되고 평균 폭은 4.6 미터 가 된다.

도로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로벡터도를 작성하였다. 마을내 전체도로의 방향을 균일한 각을 유지하는 16개 방위로 분류하여 각 방위에 대한 도로길이를 합계하고, 가장 긴 방향의 도로길이를 1로 하고 각 방위 도로길이의 최장도로에 대한 비율을 각 방위마다 점으로 표시하여 이들 점을 이으면 도로벡터도가 작성된다.(그림 14. 도로벡터도 참조)

이러한 결과 북북동-남남서·동남동-서북서의 직교축으로 만나는 도로들이 첫째와 둘째로 긴 것이 명확히 나타나서, 이 두 방향이 이 마을 도로의 고유방향임을 알 수 있다.

## 6. 결론 및 제언

장재촌은 해발 360-370 미터 의 표고에 위치하며 양쪽이 산지로 되고 가운데 강을 낀 기다란 곡저평야의 한 쪽에 위치한다. 개척초기에는 마을근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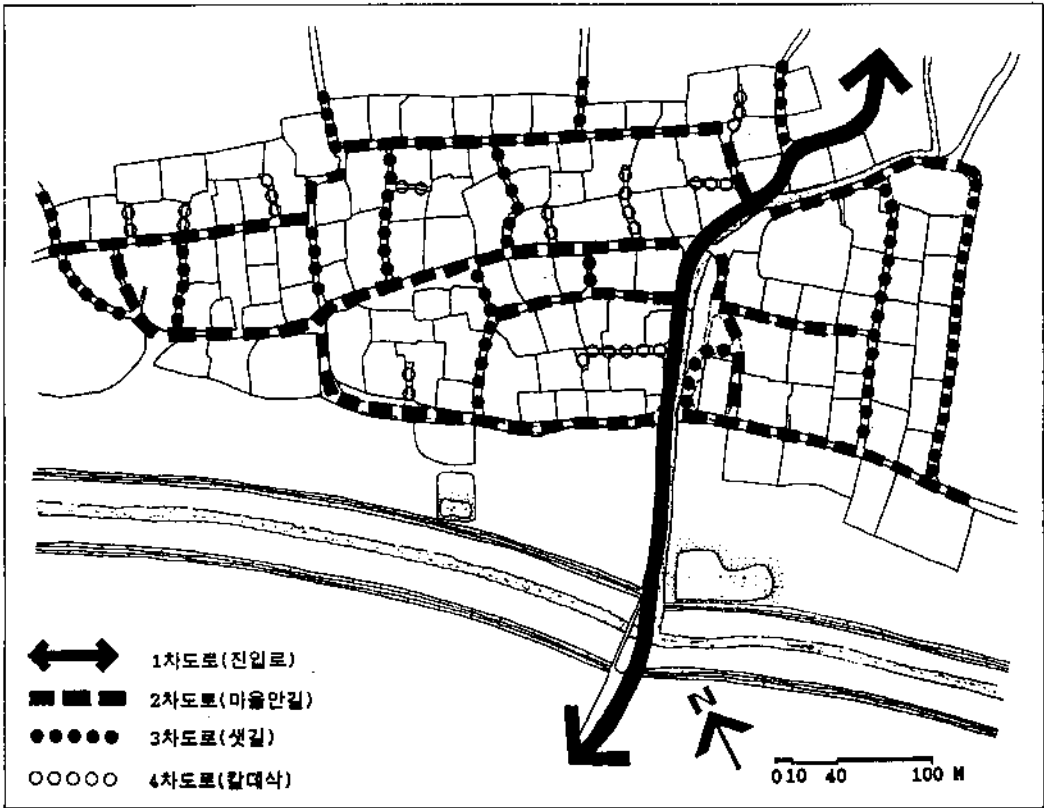


그림 13. 길의 위계적 배열

자연림의 숲으로 덮여 있었으나 경지와 주택지를 위해 숲을 없애고 산의 나무를 남벌한 결과 현재와 같은 인공적 경관이 되었다.

마을은 배산임수의 형국을 갖추고 있으며 主山과 左靑龍, 右白虎, 水口, 案山, 朝山이 뚜렷하다. 특히 마을주변의 산세는 牛形을 띠고 있다. 따라서 초기 주택지를 정할 때에 풍수적 입지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전 마을의 공간구조를 보면 영역의 분절, 통로의 방향성이 뚜렷이 나타나며 이러한 정연한 공간체계는 현재의 공간구조에서도 확대되어 나타난다.

현재 이마을 주민이 인식하는 건조환경은 주요장소와 영역 및 축의 존재를 암시한다. 오봉산과 앞산, 큰봉, 신동촌, 선바위, 뒷산, 명동촌을 순차적으로 이으면 인지영역의 경계가 되며 인지영역의 내부에도 주요장소가 있는데 이들은 버스정류소, 열사추모

비, 양로단 및 마을자체이다. 또한 인지영역내에는 길과 자연물로 이루어진 축이 있는데 5 개의 횡축과 1 개의 종축으로 이루어진다.

주요장소와 통로, 축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인식체계는 기하학적이고 좌우와 상하의 균형이 잡혀 비교적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질서가 잡힌 소우주가 이루어진다.

마을의 행정구역 총면적은 738 ha 이고 이의 27% 인 200 ha 이 경작지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산지이다. 현재 100여년의 세월에 걸쳐서 완성된 마을의 주택지는 가로가 약 600 미터, 세로는 가장 넓은 곳에서 약 220 미터의 길고 좌측이 뾰족한 췌기형의 모습이다. 마을내부의 전체면적 12.22 ha 중 주택지는 74.9% (91,465 m<sup>2</sup>)이고 도로는 14.0% (17,106 m<sup>2</sup>)이다. 주택지는 대부분 나무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내부는 다시 三分된다. 앞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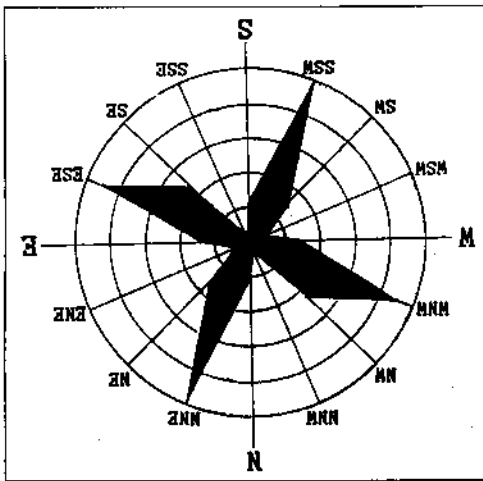


그림 14. 도로벡터도

마당으로 쓰이지 않고 터밭으로 쓰이는 것이 특이하다.

마을내 외부공간은 행위무대로서 주민들에 의해 빈번히 이용되는데 이들은 길, 공터, 특수한 건물의

앞마당, 개울주변 등이다.

마을내의 도로망은 전체적으로 그물꼴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도로는 대부분 T 자형으로 분기된다. 도로는 진입의 중요도에 따라 4단계의 위계를 가진다. 도로의 방향은 북북동-남남서·동남동-서북서의 직교축이 명확히 나타나 이 두 방향이 마을내 도로의 고유방향이 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장재촌의 공간구조는 여러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결합하여 각 차원마다 비교적 질서있는 공간체계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마을은 인간정주지로서 적합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 하나의 분석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장재촌을 연변지방의 유사하거나 대조적인 마을들과 비교하여 분석했다면 더욱 풍부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며 그 결과도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연변의 여러 전통적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王益珏편저 : 『中國地理(上,下)』, 正中書局, 臺北, 1957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 『중국의 우리민족』, 도서출판 한울, 서울, 1988. 5

최심 편저 : 『두만강개발』, 연변대학출판사, 중국연변, 1993. 6.

村山智順(최길성 역) : 『朝鮮의 風水』, 민음사, 서울, 1990. 3.

# The Spatial Structure of Ch'ang-ts'ai-ts'un Village

A Case Study on a Rural Village of Korean Immigrants in Yen-pien Area of China

Lee, Kyu Sung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ABSTRACT

Ch'ang-Ts'ai-Ts'un is a rural Village near Lung-jing City in Yen-pien Korean Autonomous Province of China. It was formed about 100 years ago by Korean Immigrants and has been developed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refore investigat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is village is a meaningful work to confirm and explore one branch of Korean architectur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using direct data collected from the field work and indirect data from books and maps. The field work consists of on-the-site survey of the village layout, interviews of residents, observation notes and photography.

Ch'ang-Ts'ai-Ts'un is located 360-370 m high above the sea level and at the side of a long valley. A river flows in the middle of the valley and relatively flat arable land exists at the both sides of the river.

The location of the village related to the surrounding river and mountains suggests that the site of the village was chosen according to Feng-Shui, Chinese and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theory. The main direction of the house layouts is South-western.

The village has been growing gradually until toda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make the village layout before Liberation(1946 A.D.)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revailed more in that period. The area of the previous village is limited to the west side of the creek. New houses were later added to the east of the creek, forming a 'New Village'.

Previously the village was composed of 3 small villages: Up, Middle and Down. Also the main access roads connecting the village with the neighboring villages were penetrating the village transversely. Presently the main access road comes to the village longitudinally from the main highway located in front of the village.

The retrospective layout shows the existence of well-formed Territory, Places and Axes, thus suggesting a coherent Micro-cosmos.

The boundary of imaginary territory perceived by present residents could be defined by linking conspicuous outside places surrounding the village such as Five-mountains, Front-mountain, Shin-dong



village, Standing-rock, Rear-mountain and Myong-dong village. Inside the territory there are also the important places such as Bus-stop, Memorial tower of patriots, Road-maintenance building and the village itself. And inside it 5 transverse and 1 longitudinal axes exist in the form of river, roads and mountains.

The perceived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formed by Places, Axes and Territory is geometrical and well-balanced and suggests this village is fit for human settlement.

The administrative area of the village is about 738 ha, 27 % of which is cultivated land and the rest is mountain area.

Initially the village and surroundings were covered with natural forest. But the trees have been gradually cut down for building and warming houses, resulting in the present barren and artificial landscape with bare mountains and cultivated land.

At present the area of the village occupied by houses is wedge-shaped, 600 m wide and 220 m deep in its maximum. The total area of the village is 122,175 m<sup>2</sup>. The area and the rate of each sub-division are as follow.

116 house-lots	91,465 m <sup>2</sup>	(74.9 %)
Land for public buildings and shops	2,980 m <sup>2</sup>	(2.4 %)
Roads	17,106 m <sup>2</sup>	(14.0 %)
Creek	1,356 m <sup>2</sup>	(1.1 %)
Vacant spaces and others	9,268 m <sup>2</sup>	(7.6 %)
<hr/>		
TOTAL	122,175 m <sup>2</sup>	(100.0 %)

Each lot is fenced around with vertical wooden pannels 1.5-1.8 m high and each house is located to the backside of the lot. The open space of a lot is sub-divided into three areas using the same wooden fence: Front yard, Back yard and Access area. Front and back yards are generally used for crop-cultivation, the custom of which is rare in Korea. The number of lots is 116 and the average size of area is 694.7 m<sup>2</sup>.

Outdoor spaces in the village such as roads, vacant spaces, front yard of the cultural hall, front yard of shops and space around the creek are good 'behavioral settings' frequently used by residents for play, chatting, drinking and movie-watching.

The road system of the village is net-shaped, having T-junctions in intersections. The road could be graded to 4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ccess roads, Inner trunk roads, Connecting roads and Culs-de-sac.

The total length of the road inside the village is 3,709 m and the average width is 4.6 m. The main direction of the road in the village is NNE-SSE and ESE-WNW, crossing with right angles.

Conclusively, the spatial structure of Ch'ang-Ts'ai-Ts'un village consists of various components in different dimensions and these components form a coherent structure in each dimension. Therefore the village has a proper spatial structure meaningful and appropriate for human living.